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일·생활 시간

2022. 12.
성인지데이터센터 이진숙

-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일·생활 시간을 맞벌이 여부 및 취업형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함
- 분석 결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맞벌이 여성과 전일제 근로 여성의 총 노동시간(일+가정관리+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총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가용 시간에 따른 인식인 시간 부족감에 대해서 맞벌이 가구 여성과 전일제 근로 여성의 시간 부족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일·생활 균형 정책이 근로 시간 축소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부담 지워지고 있는 가정 내 노동의 부담과 책임이 경감되어야함을 시사함

I. 서론

개인 생활 욕구의 증가에 따른 '일·생활 균형' 추구 의식 강화와 그에 따른 정책 방향 전환

-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 19세 이상 인구 중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비율이 2019년에 비해 4.0%p 상승한 48.2%로 약 절반이 일·생활 균형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일과 가정생활이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은 45.0%, 여성은 53.5%로 여성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의식이 높았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상승할 수록 일과 가정생활이 둘 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는데, 흥미로운 점은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30%대 이상이 “일을 우선시”한다에 동의하였음
 - 즉, “일을 우선시”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은 30대로 나타남
 - 따라서 보편적인 생애주기 상, 결혼을 하고 출산과 양육을 집중 경험하는 30대 집단에서 일보다 가정에 더욱 무게 중심을 두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30대가 가장 일·생활 균형에의 욕구가 높으며, 필요 또한 절실한 집단임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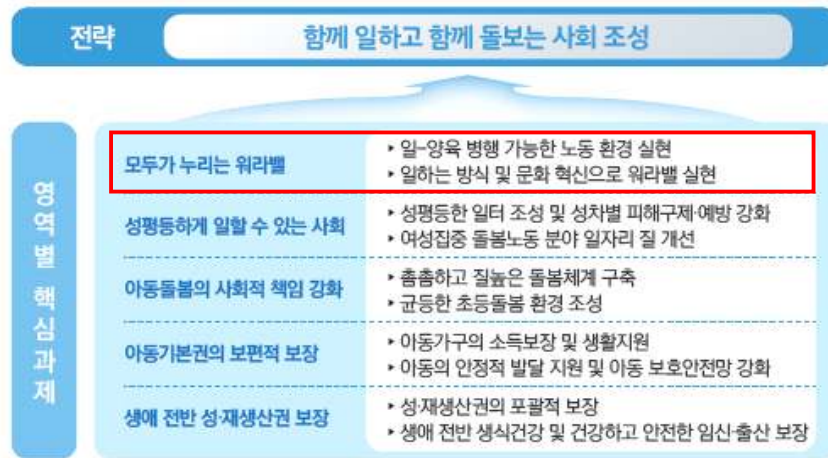
〈표 1〉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

(단위: %)

구분	계1)	일을 우선시			둘 다 비슷	가정생활을 우선시		
		우선시	주로	대체로		우선시	대체로	주로
2019년	100.0	42.1	18.1	24.0	44.2	13.7	11.2	2.5
2021년	100.0	33.5	12.7	20.8	48.2	18.3	14.0	4.3
남자	100.0	38.8	15.0	23.8	45.0	16.2	12.2	3.9
여자	100.0	26.3	9.7	16.6	52.5	21.1	16.3	4.8
19~29세	100.0	35.9	13.3	22.5	44.7	19.4	12.6	6.9
30~39세	100.0	28.8	10.3	18.5	46.9	24.3	18.6	5.7
40~49세	100.0	32.6	11.2	21.4	48.6	18.8	15.1	3.7
50~59세	100.0	36.5	15.1	21.3	49.6	13.9	11.0	2.9
60세이상	100.0	34.0	13.7	20.3	49.7	16.3	12.7	3.6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보도자료(2021. 11. 27)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달성을 위하여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과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을 추구하며, 구체적으로는 시간 확보 차원에서의 육아휴직 개편 및 확대,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가질 돌봄휴가,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등이 있음
 - 이는 기존의 일-가정 양립 관점의 정책 설계에서 일과 가정, 그리고 개인 생활까지 포함한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관점으로서의 정책 방향의 변화임



[그림 1]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분야별 정책과제

출처: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p51 인용

그러나 한국사회 만연한 장시간 근로와 그에 따른 개인 생활 영위를 위한 가용 시간의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로, 특히 30대 남성 집단에서 두드러짐

- 한국사회 근로시간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긴 하나, OECD 주요 국가 임금근로자 중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28시간이며, 독일, 네덜란드 근로시간은 1,400시간 미만이고, 한국 다음으로 긴 미국 근로시간도 1,802시간에 불과함

<표 2> OECD 주요국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11	2016	2021
한국	2,119	2,033	1,928
독일	1,353	1,334	1,306
네덜란드	1,358	1,366	1,364
일본	1,747	1,724	1,633
미국	1,788	1,785	1,802

출처: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자료 : OECD, 「<https://stats.oecd.org>,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2022. 6

- 월간총근로시간의 추이를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20년에 비하여 2021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근로시간을 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 월간총근로시간은 164.2시간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시간 더 긴 170.4시간, 여성은 155.4시간으로 집계됨.
 -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근로시간이 174.3시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0대로 30대보다 약 5시간 적은 169.9시간이었으며, 50대(163.7시간), 29세 이하(155.0시간), 60세 이상(149.1시간)으로 나타남

〈표 3〉 임금근로자의 성별 및 연령집단별 월간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2010	2015	2020	2021
전체		187.0	173.5	163.6	164.2
성	남성	190.6	179.2	169.5	170.4
	여성	181.2	165.0	155.0	155.4
연령집단	29세 이하	180.3	164.6	155.7	155.0
	30-39세	187.6	180.1	173.4	174.3
	40-49세	189.2	176.4	168.8	169.9
	50-59세	190.5	173.2	162.0	163.7
	60세 이상	192.8	163.9	148.4	149.1

주: 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30대의 시간 부족, 시간 압박감이 가장 크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여성의 시간 압박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4.4%가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성, 연령, 자녀 유무에 따라 시간 압박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
 - 남성은 시간 압박을 느끼는 경우, 직장일을 줄이고 싶어하는 비율이 62.9%, 가사는 1.9%인 반면, 여성은 직장일 40.8%, 가사 19.5%로 나타나 여성에게 가사로 인한 시간 압박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함
 - 전 연령대 중에서 30대의 시간 압박이 가장 컸으며(75.0%),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79.9%, 맞벌이 가구 중에서는 남편(67.6%)보다 아내가(70.3%)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 시간 압박 및 줄이고 싶은 일

(단위: %)

구분	시간 압박				시간 부족한 경우 줄이고 싶은 일							
	부족		여유		직장일	자기 학습	이동	가사1	교제2	기타3		
	2014	2019	2014	2019								
전체		59.5	54.4	40.5	45.6	52.2	11.9	10.8	10.5	6.1	8.6	
성	남자	61.4	56.5	38.6	43.5	62.9	12.1	11.8	1.9	6.0	5.3	
	여자	57.7	52.3	42.3	47.7	40.8	11.6	9.8	19.5	6.2	12.2	
연령	10~19세	63.8	53.6	36.2	46.4	3.6	60.7	18.3	0.2	6.8	10.3	
	20~29세	71.3	65.4	28.7	34.6	48.7	18.0	17.2	2.3	6.3	7.5	
	30~39세	77.0	75.0	23.0	25.0	56.9	3.4	9.9	13.0	3.5	13.2	
	40~49세	70.0	66.9	30.0	33.1	59.4	3.0	9.8	15.5	4.6	7.8	
	50~59세	58.8	54.3	41.2	45.7	68.0	3.2	6.4	10.5	7.6	4.2	
60세 이상	24.8	26.7	75.2	73.3	53.9	4.9	5.5	16.9	10.0	8.7		
미취학 자녀	있음	78.8	79.9	21.2	20.1	49.8	2.4	8.2	17.1	3.1	19.4	
	없음	52.4	47.9	47.6	52.1	62.5	3.4	7.7	14.1	6.7	5.7	
가구 유형	맞벌이	남편	72.4	67.6	27.6	32.4	76.4	2.6	9.8	2.3	5.0	3.8
		아내	76.2	70.3	23.8	29.7	57.6	2.1	5.8	22.9	4.3	7.4
	외벌이 (남편)	남편	69.5	69.3	30.5	30.7	77.6	2.2	10.5	1.2	4.9	3.6
		아내	44.2	41.7	55.8	58.3	2.3	5.9	4.3	46.3	7.4	33.7
	외벌이 (아내)	남편	13.4	17.2	86.6	82.8	20.7	7.2	19.6	20.3	21.3	10.8
	아내	73.1	65.7	26.9	34.3	65.8	3.1	5.1	14.8	4.6	6.7	

주: 미취학 자녀는 가구 내 10세 미만 자녀 유무로 구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2020. 7. 30)

하루 시간 사용은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을 중심으로 그 외 활동들의 가용 시간이 구조화되므로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전체 하루 시간의 배분을 살펴보아야 함

- 개인의 하루 시간 사용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면, 식사 등과 함께 경제 활동 상태에 따른 유급노동 시간과 같은 의무시간을 중심으로 구조화됨
- 따라서 필수적인 개인유지 시간과 의무시간인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으로 소요되는 시간의 사용량과 함께 배분되어지는 개인의 여가 활동 시간 파악이 필요함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여부와 취업형태에 따른 일·생활시간의 파악

-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시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하는 가운데, 취업 여부와 취업 형태에 따른 시간 배분을 파악하고자 함
 - 개인의 생활 시간은 함께 생활하는 가구원의 영향을 받으므로 가구의 특성과 개인의 유급노동 근로형태에 따른 생활 시간 파악이 필요함
 - 즉, 개인의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지, 일을 하는 경우 중에는 시간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근로형태에 따른 하루 평균 생활시간 사용 행태를 파악해보고자 함

또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집단별로 시간 부족감을 비교하여 일·생활 균형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에 집중되어있는 불균등한 시간 배분은 시간 압박감 및 피로감으로 연결되며, 이러한 시간 압박 및 피로는 개인의 삶의 질에 저하를 초래하며,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맞벌이 여부 및 취업형태에 따른 하루 생활시간량을 분석하고자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
 - 하루 평균 시간 사용 행태를 대분류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 시간 사용에 대한 인식(시간 부족감)을 파악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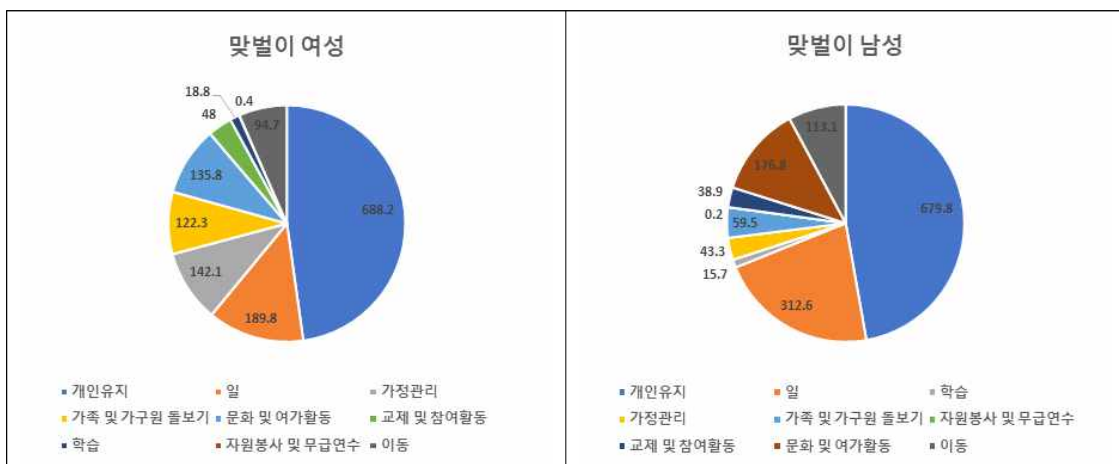
II.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하루 시간¹⁾

1. 맞벌이 여부별 하루 시간 사용

맞벌이 가구 여성의 총 노동시간²⁾이 가장 길고, 개인 여가생활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의 시간 사용을 비교해보면, 맞벌이 가구의 남성과 남편 홑벌이 가구의 남성의 일하는 시간은 비슷한 수준
 - 동거 중인 맞벌이 부부 가구 여성의 일(유급노동)하는 하루 평균 시간은 약 3시간(189.9분), 남성은 약 5시간(312.6분)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남편 홑벌이 가구의 남성 또한 일하는 시간은 5시간(305.8분)으로 나타남
- 맞벌이 가구의 남성과 남편 홑벌이 가구의 남성의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돌봄 시간은 비슷한 수준
 - 맞벌이 부부 가구 남성의 하루 평균 가정관리, 가족·가구원 돌봄 시간은 각각 43.3분, 59.5분으로 총 102.8분으로 나타남. 남편 홑벌이 가구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는 36.3분, 가족·가구원 돌봄은 57.7분으로 총 94분 정도임.
- 반면, 맞벌이 가구 여성의 일하는 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은 총 7시간 34분으로 가장 길었음
 - 맞벌이 가구 여성의 총 노동시간(일+가정관리+가족·가구원 돌봄)은 454.2분, 남성은 415.4분, 남편 홑벌이 가구 여성은 427.4분, 남성은 399.8분으로 나타남
- 개인 여가활동 시간인, 문화 및 여가활동과 교제 및 참여활동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맞벌이 가구 여성이 약 3시간(183.8)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
 - 남편 홑벌이 가구 남성의 개인 여가활동 시간이 약 3시간 38분(218.6)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남편 홑벌이 가구 여성이 3시간 36분(216.6분), 맞벌이 가구 남성이 3시간 35분(215.7분) 순임

(단위: 분)



[그림 2] 미취학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하루 생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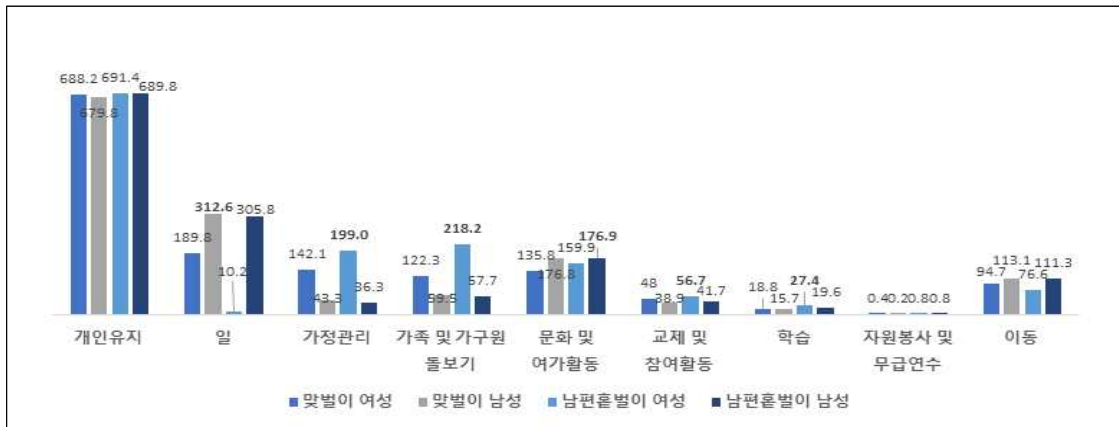
1) 본고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하였음을 밝힘.
 2) 총 노동시간은 유급노동(일)과 무급노동(가사노동)의 합으로, 생활시간조사의 대분류 항목인 “일”과 “가정관리”, “가족·가구원돌봄”을 뜻함.

〈표 5〉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여부별 하루 시간 사용

(단위: 분)

구분	맞벌이		남편·혼벌이	
	여성 (n=1,276)	남성 (n=1,192)	여성 (n=1,428)	남성 (n=1,384)
개인유지	688.2	679.8	691.4	689.8
유급노동+무급노동	454.2	415.4	427.4	399.8
일	189.8	312.6	10.2	305.8
가정관리	142.1	43.3	199.0	36.3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22.3	59.5	218.2	57.7
개인 여가활동	183.8	215.7	216.6	218.6
문화 및 여가활동	135.8	176.8	159.9	176.9
교제 및 참여활동	48.0	38.9	56.7	41.7
이동	94.7	113.1	76.6	111.3
학습	18.8	15.7	27.4	19.6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0.4	0.2	0.8	0.8

(단위: 분)



[그림 3]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여부별 하루 시간 사용

개인 여가활동이 가장 열악한 맞벌이 가구 여성의 미디어 여가활동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 홀벌이 가구 여성의 10세 미만 아이돌보기 시간이 가장 길었음

- 주요 항목별 사용 시간을 보면, 개인 유지 중 수면 시간은 맞벌이 가구 남성이 가장 적었고(8시간 10분), 식사 시간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모든 가정관리 항목(식사준비, 세탁, 청소)은 남편 홀벌이 여성의 시간량이 가장 많았음
 - 수면 시간은 남편 홀벌이 가구 여성이 8시간 37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맞벌이 가구 여성이 약 8시간 24분, 남편 홀벌이 가구 남성이 8시간 15분으로 나타남
- 가족·가구원 돌보기 중에서 10세 미만 아이돌보기 시간은 남편 홀벌이 가구의 여성이 약 3시간 33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남편 홀벌이 가구 남성이 56.4분으로 가장 적었음
- 개인 여가시간은 맞벌이 가구 여성이 가장 적었으며, 미디어 여가활동이 다른 집단보다 두드러지게 적었고, 스포츠 및 레포츠와 같은 활동적 여가 시간도 낮았음
 - 미디어 여가활동에 대한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27분으로 맞벌이 가구 남성보다 17분, 남편 홀벌이 가구 여성보다 18분, 남편 홀벌이 가구 남성보다 16분 적었음
 - 양질의 여가로 분류하고 있는 활동적 여가활동인 스포츠 및 레포츠 시간에서도 맞벌이 여성의 시간량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가의 시간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여겨짐

〈표 6〉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여부별 주요 항목별 시간량

(단위: 분)

구분	맞벌이		남편 홀벌이	
	여성 (n=1,276)	남성 (n=1,192)	여성 (n=1,428)	남성 (n=1,384)
수면	504.2	490.7	517.0	495.4
일	189.8	312.6	10.2	305.8
식사	113.4	116.9	115.2	118.9
식사준비	71.3	14.1	99.6	9.0
의류 관리(세탁)	17.2	2.5	23.7	1.4
청소 및 정리(청소)	31.0	14.2	43.5	10.1
상품 및 서비스 구입(쇼핑)	19.5	9.7	27.5	12.0
10세 미만 아이돌보기	119.6	57.8	213.8	56.4
미디어 여가활동	87.4	104.0	105.6	103.3
스포츠 및 레포츠	12.5	19.2	16.2	20.1
일 관련 이동	34.3	68.1	1.7	66.7

2. 취업 형태³⁾별 하루 시간 사용

미취학 자녀가 있는 전일제 근로 여성의 총 노동 시간이 가장 길고, 개인 여가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시간제 근로 남성의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전일제 근로 여부에 따라 하루 시간 사용을 보면, 전일제 근로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개인 여가시간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전일제 근로 여성은 전일제 근로 남성에 비해 개인유지 시간이 길었으나, 여가활동 시간이 약 40분 적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전일제라 하더라도 전일제 근로 남성보다 일하는 시간이 약 1시간 20분이 적었으나,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돌보는 시간으로 인하여 총 노동시간(유급노동+무급노동)은 전일제 근로 남성보다 약 50분 더 긴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전일제 근로 여성의 개인유지 시간이 가장 길었는데(11시간 28분), 대신 개인 여가활동 시간이 2시간 42분으로 가장 적었음
 - 전일제 근로 여성의 개인 여가활동 시간은 총 2시간 42분으로 가장 적었으며, 전일제 근로 남성은 3시간 23분을 할애하였음. 반면, 시간제 근로 남성과 여성의 개인 여가활동 시간은 비슷한 수준임
- 시간제 근로 남성의 개인유지 시간이 가장 적고, 일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시간제 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이동 시간에 상당부분을 소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시간제 근로 남성의 개인 유지 시간은 약 10시간 50분으로 가장 적었으며, 일하는 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전일제 근로 남성보다 5시간 30분보다 약 1시간 많았음. 또한, 이동 시간에도 시간제 근로 남성은 2시간 4분을 사용하며, 전일제 근로 남성보다 약 10분 더 많이 소모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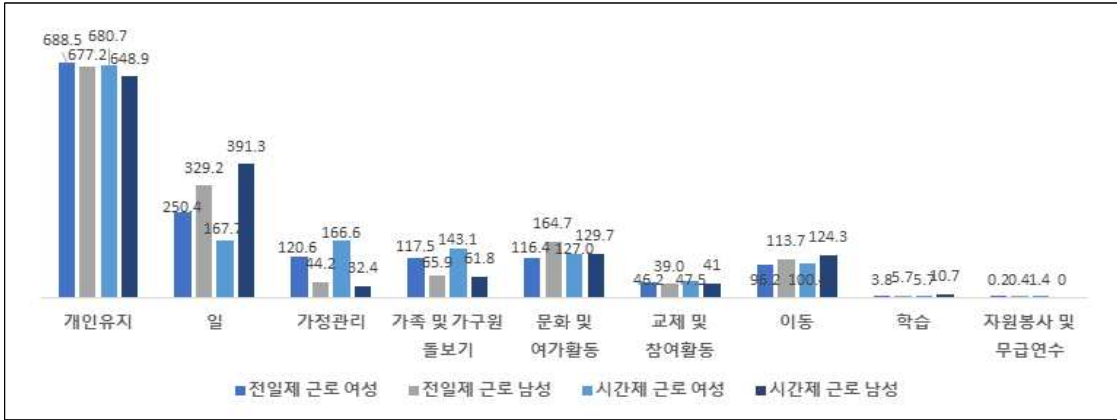
〈표 7〉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취업형태별 하루 시간 사용

(단위: 분)

구분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여성 (n=1,746)	남성 (n=1,926)	여성 (n=390)	남성 (n=72)
개인유지	688.5	677.2	680.7	648.9
유급노동+무급노동	488.5	439.3	477.4	485.5
일	250.4	329.2	167.7	391.3
가정관리	120.6	44.2	166.6	32.4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17.5	65.9	143.1	61.8
개인 여가활동	162.6	203.7	174.5	170.7
문화 및 여가활동	116.4	164.7	127.0	129.7
교제 및 참여활동	46.2	39.0	47.5	41.0
이동	96.2	113.7	100.4	124.3
학습	3.8	5.7	5.7	10.7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0.2	0.4	1.4	0.0

3) 생활시간조사의 취업형태 구분은 “지난 1주일 동안 직장에서 종사상지위”에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에 응답한 경우 ①전일제 근로(고용 계약 시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정규 직원과 동일한 시간 동안 근로하는 형태로 격일제, 교대제를 포함), ②시간제 근로(고용 계약 시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짧게 근로하는 형태)를 구분하여 조사함

(단위: 분)



[그림 4]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취업형태별 부부의 하루 시간 사용

시간제 근로 남성의 수면 시간이 가장 적었으며, 일하는 시간이 가장 긴만큼 일 관련 이동 시간 또한 1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음

- 주요 항목별 사용 시간을 보면, 개인 유지 중 수면 시간은 시간제 근로 남성이 7시간 35분으로 가장 적고, 미디어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며, 일 관련 이동 시간이 1시간 26분으로 가장 길었음
 - 수면 시간은 시간제 근로 남성이 7시간 35분을 소요하는 가운데, 시간제 근로 여성은 8시간 20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일 관련 이동 시간은 시간제 근로 남성이 1시간 26분, 시간제 근로 여성은 그보다 약 50분 적은 35분 가량 소요하고 있었음
- 시간제 근로 여성의 집안일에 투입하는 시간량이 가장 많았으며, 가족·가구원 돌보기 중에서도 10세 미만 돌보기 시간량 또한 시간제 근로 여성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음
 - 시간제 근로 여성은 일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반면(하루 평균 약 2시간 47분), 대신 식사준비나 세탁, 청소, 쇼핑과 같은 가사노동과 10세 미만 아이돌보기 시간이 가장 많았음

<표 8>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취업형태별 주요 항목별 시간량

(단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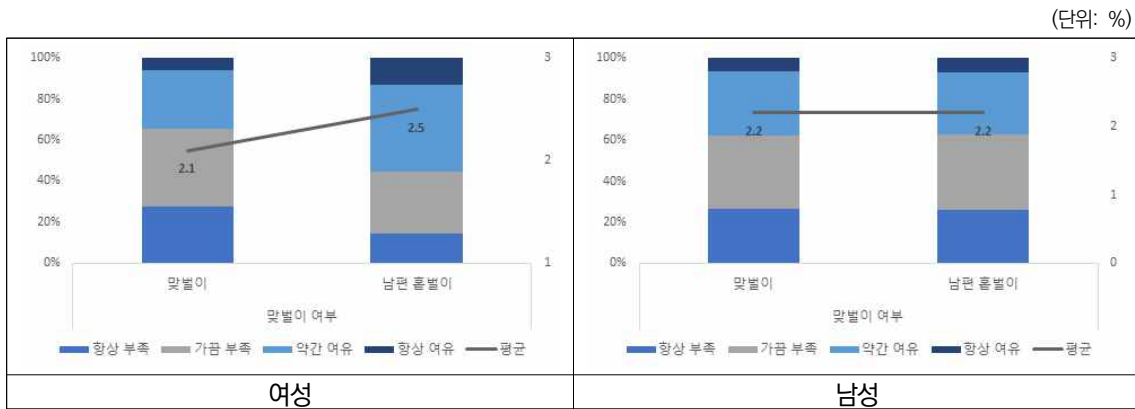
구분	전일제 근로		시간제 근로	
	여성 (n=1,746)	남성 (n=1,926)	여성 (n=390)	남성 (n=72)
수면	502.1	487.5	500.9	455.4
일	250.4	329.2	167.7	391.3
식사	112.0	117.2	110.2	113.9
식사준비	61.2	13.3	81.5	10.6
의류 관리(세탁)	13.6	2.2	21.9	1.3
청소 및 정리(청소)	25.1	13.2	37.9	13.3
상품 및 서비스 구입(쇼핑)	18.5	12.3	22.7	6.5
10세 미만 아이돌보기	114.7	64.1	138.1	58.3
미디어 여가활동	77.9	99.8	87.8	61.1
스포츠 및 레포츠	9.2	16.9	10.5	21.1
일 관련 이동	43.3	71.6	34.6	86.0

Ⅲ.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시간 부족감

1. 맞벌이 여부 및 취업형태별 시간 부족감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 남성의 시간이 “항상 부족”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일제 근로 여성의 시간 부족한 정도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시간 부족감을 살펴 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으나, 부족한 정도는 모두 1.8점으로 비슷한 수준의 부족감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맞벌이 가구 남성의 경우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8%, 남편 홀벌이 가구 남성은 39.7%로 두 집단 모두 동일 집단의 여성에 비하여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음
 - 반면 남편 홀벌이 가구 여성의 시간 부족감은 2.1점으로, 나머지 맞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 남편 홀벌이 가구 남성이 모두 1.8점인 것에 비하여 시간 부족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됨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의 전일제 근로 여성의 시간 부족감이 가장 심각했으며, 시간제 근로 남성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고, “약간 여유”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항상 여유”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0%로 확인됨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와 맞벌이 여부, 취업형태별로 종합하여 봤을 때, 미취학 자녀가 있고 전일제 근로를 하는 여성의 시간 부족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간 활용 유연성이 시간 부족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그림 5]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시간 부족감

4) 시간 부족감은 “귀하는 평소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하여 ①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②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③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④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으로 대답하며, 평균 점수는 1에 가까울 수록 부족감을 빈번하게 느끼는 것임

〈표 9〉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시간 부족감

(단위: %)

구분		항상 부족		가끔 부족		약간 여유		항상 여유		평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9	39.8	42.3	40.8	17.2	16.3	2.5	3.2	1.8	1.8
	남편 홀벌이	25.4	39.7	40.9	41.0	29.3	16.0	4.5	3.2	2.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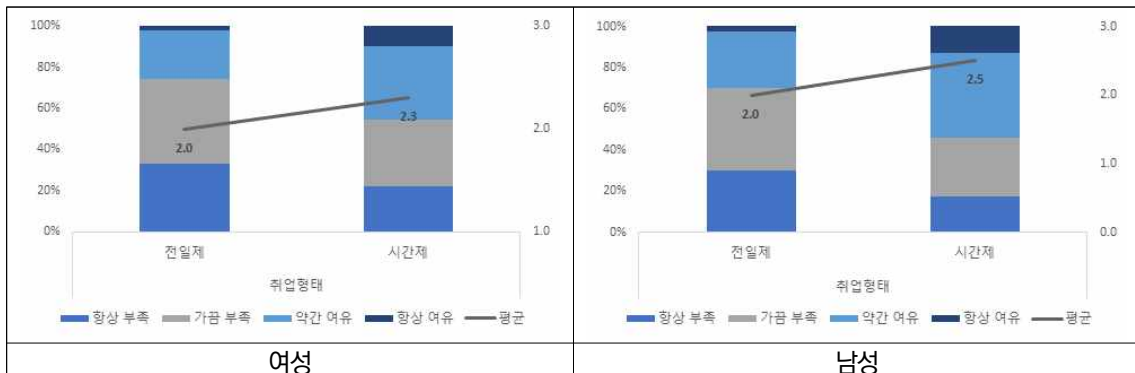
2. 취업형태별 시간 부족감⁵⁾

전일제 근로 여성의 시간 부족한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 시간 부족감을 살펴 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으나, 부족한 정도는 모두 1.8점으로 비슷한 수준의 부족감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맞벌이 가구 남성의 경우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8%, 남편 홀벌이 가구 남성은 39.7%로 두 집단 모두 동일 집단의 여성에 비하여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음
- 반면 남편 홀벌이 가구 여성의 시간 부족감은 2.1점으로, 나머지 맞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 남편 홀벌이 가구 남성이 모두 1.8점인 것에 비하여 시간 부족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됨

(단위: %)



[그림 6]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취업형태에 따른 부부의 시간 부족감

〈표 10〉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취업형태에 따른 부부의 시간 부족감

(단위: %)

구분		항상 부족		가끔 부족		약간 여유		항상 여유		평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취업형태	전일제	46.4	41.6	41.3	42.8	11.8	14.3	0.5	1.3	1.7	1.8
	시간제	38.0	38.9	44.1	33.3	16.9	27.8	1.0	0.0	1.8	1.9

5) 시간 부족감은 “귀하는 평소 시간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하여 ①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②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③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④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으로 대답하며, 평균 점수는 1에 가까울 수록 부족감을 빈번하게 느끼는 것임

IV. 요약 및 시사점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여성과 전일제 근로 여성의 총 노동시간량이 가장 길었으며, 그에 따라 시간 부족감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여성의 일+가정관리+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를 모두 합한 총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음
 - 맞벌이 가구 남성보다 일하는 시간량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일까지 합한 총 노동시간은 약 40분, 남편 흠벌이 가구의 여성보다 약 27분, 남편 흠벌이 가구 남성보다 약 55분 많았음
-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전일제 근로를 하는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다음으로 시간제 근로 남성, 시간제 근로 여성, 마지막으로 전일제 근로 남성 순이었음
 - 전일제 근로 여성의 총 노동시간은 약 489분, 시간제 근로 남성은 약 486분, 시간제 근로 여성은 약 477분, 전일제 근로 남성은 439분으로 나타남
- 의무시간인 총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가용 시간에 따른 인식인 시간 부족감에 대해서 맞벌이 가구 여성과 전일제 근로 여성의 시간 부족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일제 근로 여성의 시간 부족감이 가장 심각했으며, 남편 흠벌이 가구 여성과 시간제 근로 남성의 시간 부족감 정도가 가장 낮아, 시간 부족감은 시간의 활용성, 유용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총 노동시간(일+가정관리+가족·가구원 돌봄)의 차이는 일·생활 균형 정책이 근로 시간 축소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부담 지워지고 있는 가정 내 책임이 경감되어야함을 시사함
 - 여성의 경우,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에 할애하는 시간이 남성보다 길며, 전일제 근로 여성은 전일제 남성보다 근로 시간이 적음에도 오히려 가사일로 인하여 총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간 압박을 가장 크게 느끼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일·생활 균형 정책을 위한 시사점

- 일·생활 균형 정책은 가구특성과 근로 형태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맞벌이 가구이며, 부부 모두 전일제 근로인 경우 시간 부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며, 이들의 생활시간은 주로 일과 가사일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일하는 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총 노동시간량을 통해 재확인 함
 - 시간제 근로는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을 다르게 구조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에게는 시간제 근로에 따른 유연하고 비교적 적은 유급노동시간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가용시간을 집안일에 투입하도록 하였음
 - 반면, 시간제 근로 남성은 개인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시간 부족감을 덜 느끼고 있지만, 시간제 근로임에도 가장 긴 유급노동 시간을 보내며, 개인 유지를 위한 수면이나 여가, 가족 돌봄 시간에는 가장 적은 시간량을 투입하고 있었음
 - 여성은 아직까지 무급노동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것이 일자리를 포함한 생활시간 사용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돌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반대로 남성은 가족돌봄 및 가사노동 참여가 저조

하고 대부분 유급노동 시간에 편중되어있음. 주52시간제 등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돌봄 참여를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함

-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돌봄이 핵심적 과업인 생애주기에 놓여 있으므로, 부부 모두의 일·생활 균형 달성을 위하여 부부 간 공평한 책임 의식과 일 분담, 이를 위한 적극적인 일상생활의 공유 및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함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2020. 7. 30)

통계청, 「사회조사」 보도자료(2021. 11. 27)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자료 : OECD, 「<https://stats.oecd.org>,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2022. 6